



전선희 교수의

6.27. 지방직 9급 해설 및 총평 - C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1. 정답 1번

<정답 해설>

‘허구하다’가 기본형이므로 ‘허구한’으로 쓴다.

※ 허구하다: (형용사)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

<오답 해설>

② 벌여야겠다: ‘벌이다’의 활용형

※ 벌이다: 「1」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2」 놀이판이나 노름판 따위를 차려 놓다.

「3」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

「4」 가게를 차리다.

「5」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

③ 서슴지: ‘서슴다’의 활용형.

※ 서슴다: 어떤 행동을 섣뜻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

④ 서투른: ‘서투르다’의 활용형. 준말은 ‘서툴다’이며, 준말의 경우는 모음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2. 정답 1번

<정답 해설>

‘굳는’은 용언인데 ‘-는’ 어미와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이다. (형용사는 ‘-는’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형용사 제약.)

<오답 해설>

② 성격이 ‘다른’의 ‘다른’은 ‘차이가 나는’ 혹은 ‘동일하지 않은’으로 해석되므로 형용사이다.(품사의 통용)

③ ‘새로운’은 ‘새롭다’의 활용형이며, 현재형 ‘새롭는다’의 형태가 불가능하므로 형용사이다.

④ ‘아픈’은 ‘아프다’의 활용형으로 현재형 ‘아프다’가 불가능하므로 형용사이다.

3. 정답 3번

<정답 해설>

‘그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는 ‘마음씨 좋은’이 ‘할머니’를 수식하는지 ‘손자’를 수식하는지가 모

호한 문장이다. 따라서 중의성을 없애려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할머니의 마음씨 좋은 손자가 그이다.’ 혹은 ‘그의 할머니는 마음씨가 좋으시다’ 정도로 고쳐야 할 것이다.

4. 정답 2번

<정답 해설>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나머지는 고치지 않는 것이 고친 후보다 더 자연스럽다.

5. 정답 2번

<정답 해설>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하는 가장 일반적인 말이다.

<오답 해설>

① ‘귀하가(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문장이 되므로 어색하다. ‘부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가 자연스러울 것이다.

③ ‘상품은 품질이십니다’에서 상품은 사람이 아니므로 ‘-시’를 넣지 않는다. ‘품질입니다.’로 고친다.

④ 나라, 민족 등은 개인이 대표하여 낫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저희나라’는 ‘우리나라’로 고치는 것이 맞다.

6. 정답 3번

<정답 해설>

제시된 글은 ‘감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어서 철학자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경험론자들의 경우는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감각을 중시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감각을 통해야만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 답이 된다.

③ 종 치는 것을 직접 못 본 사람, 즉 종소리를 듣는



전선희 교수의

6.27. 지방직 9급 해설 및 총평 - C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청각적인 경험을 못 해 본 사람은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이 부합된다.

<오답 해설>

나머지는 모두 경험에서 얻어지는 감각이 아닌 사고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으므로 답이 아니다.

7. 정답 4번

<정답 해설>

아내는 남편의 무능함을 질책하고 있으므로 '외경'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 외경(=경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8. 정답 4번

<정답 해설>

대상의 나열은 없다.

9. 정답 3번

<정답 해설>

제시된 내용에서 송이가 '추풍감별곡'을 짓게 되는 계기는 가을날 마음이 쓸쓸하고,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시가 가장 유사하다. ③ 유리왕의 '황조가' 역시 아내 '치희'와 이별하고 홀로 돌아가는 길에 사랑하는 이와 이별한 것에 대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공무도하가'는 임과의 사별(死別)을 슬퍼하는 노래이다.

② 허난설헌의 한시를 번역한 것인데,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있지만, 출제된 내용으로만 보면 화자는 추위 속에서 그 추위를 견디며(가난한 환경에서) 시집갈 사람들의 옷을 계속 만들지만, 정작 자신은 언제 시집을 가나 한탄하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

④ 고려시대 이별의 한시 중 백미로 꼽히는 정지상의 '송인'이다. 친구와의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10. 정답 3번

<정답 해설>

흐름을 따라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밑줄의 내용만 참고해도 흐름이 보일 것이다.

(가) 21세기 인류의 운명은 과학 기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론은 공허한 것이다.

(다) 기술적 질서는 자연에, 인간의 삶에 심층적 변화를 초래했다. 획일화된 관리 사회나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가 그 대표적 예이다. 물론 고도 기술 사회의 일부 산업 분야는 중앙 집권적 기업문화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개방성을 택할 것이다.

(나) 그러나 모든 생산 체제가 중앙 집권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또 범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질수록 중앙 집권적 권력에 의해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기술사회에 대한 유혹을 느낄 것이다.

(라) 이제 더 이상 기술은 생산 수단만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여러 연관된 기술들과 기술적 지식들에 의해 구성된 유기적 앙상블로 기능하는 것이다.

11. 정답 4번

<정답 해설>

'夫唱婦隨(부창부수)'는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르는 부부 사이의 도리'를 의미하는 성어이다.

<오답 해설>

① 甲男乙女(갑남을녀):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라는 뜻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② 樵童汲婦(초동급부): 땔나무를 하는 아이와 물을 길는 아낙네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

③ 張三李四(장삼이사): 장씨(張氏)의 셋째 아들과 이씨(李氏)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이 특별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전선희 교수의

6.27. 지방직 9급 해설 및 총평 - C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12. 정답 2번

<정답 해설>

‘和而不同(화이부동)’은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① 同氣相求(동기상구):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하여 올린다는 뜻으로,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자연히 모인다는 말.
- ③ 同聖異俗(동성이속): 사람이 날 때는 다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라면서 그 나라의 풍속으로 인해 서로 달라짐을 이르는 말.
- ④ 吳越同舟(오월동주):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정답 1번

<정답 해설>

- 分類(분류): 종류에 따라서 가름.
- 分離(분리): 서로 나뉘어 떨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區分(구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눴.
- 리포트 자료를 종류별로 분류해 두어라.
- 재활용할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야 한다.
- 그는 언제나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안다.

14. 정답 3번

<정답 해설>

- 곰살궂다: 「1」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
- 「2」 꼼꼼하고 자세하다.

15. 정답 2번

<오답 해설>

- 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

- ③ 여름 불도 쪼다 나면 서운하다:

「1」 당장에 쓸데없거나 대단치 않게 생각되던 것도 막상 없어진 뒤에는 아쉽게 생각된다.

「2」 오랫동안 해 오던 일을 그만두기는 꽤 어렵다.

- ④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힘이나 밀천을 들어도 보람 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

16. 정답 4번

<정답 해설>

- ④ ‘부쉘진’은 ‘부서진’으로 써야 한다.

‘부수다’의 활용형은 ‘부수고, 부순, 부수어(부쉘)’ 등이며, ‘부서지다’의 활용형은 ‘부서지고, 부서진, 부서져’ 등이다.

- 부수다:

「1」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

「2」 만들어진 물건을 두드리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다.

- 부서지다:

「1」 단단한 물체가 깨어져 여러 조각이 나다.

「2」 액체나 빗 따위가 세게 부딪쳐 산산이 흩어지다.

「3」 목재 따위를 짜서 만든 물건이 제대로 쓸 수 없게 헐어지거나 깨어지다.

「4」 희망이나 기대 따위가 무너지다.

<오답 해설>

- ① 시답잖다: 볼품이 없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② -배기: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③ 금세: 지금 바로.

17. 정답 2번

<정답 해설>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보일 때는 대괄호를 사용한다. → 나이[年歲]



전선희 교수의

6.27. 지방직 9급 해설 및 총평 - C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18. 정답 1번

<정답 해설>

‘몽타주는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고 했다.

19. 정답 3번

<정답 해설>

생산물 시장의 특성을 먼저 제시한 후에 그와는 다른 노동 시장의 특성을 제시하여 두 시장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중심소재인 노동시장을 설명했다.

20. 정답 4번

<정답 해설>

앞부분에 소장이 감독조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 3공사장으로 보냈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소장은 인부들을 통솔하려면 감독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조를 해체하여 상황을 복구할 생각은 아니다.

※ 황석영의 「객지」는 근대화 사업이 한창이던 1960년대 후반 어느 바닷가의 간척 공사현장을 배경으로 하여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고용주 측과 그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쟁의를 다루는 소설이다.

<총평 전 한마디>

이렇게 2015년 9급 시험은 끝났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오든 최선을 다했다면, 그리고 지금 내 모습에 후회하지 않을 당당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입니다. 혹,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대들은 눈부시게 젊으니깐!

<총평>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웠고, 대부분이 기초 이론을 활용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어휘와 소설이 많이 출제된 것도 특징이다.

• 문법: 4문항

용언의 활용, 품사 구분, 표기법, 문장부호 등이 출제되었다. 기초이론과 기본서에서 봤던 표준어 목록, 문장부호 자료만으로도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 문학: 4문항

제시된 내용을 통하여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2문항(양반전, 객지), 인물의 심리와 통하는 시조 찾기가 1문항, 서술방식을 묻는 것이 1문항(심청전)이었다.

수업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설은 어차피 전문(奎文)을 보여주기 어려우므로 제시되는 내용 안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문제들 역시 제시된 장면 안에 인물의 특성부터 서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까지 모두 드러났다.

그 중 시조를 찾는 문제가 수험생에 따라서는 좀 헷갈렸을 수 있다. 제시된 선택지들이 대부분 ‘이별’과 관련이 있었으므로 정확하게 작품의 핵심을 아는 것이 필요했다.

• 비문학: 4문항

비문학 지문들은 출제된 문학작품들에 비해 대체로 길지도 길지 않고, 내용 파악에도 어려움이 없는 무난한 것들이었다.



전선희 교수의

6.27. 지방직 9급 해설 및 총평 - C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 올바른 문장 표현: 2문항

기본서를 통해 공부했던 이어진 문장의 구조나 중의성, 조사의 사용 등에서 모두 출제되었고 수업 중에 다루었던 내용들이라 답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 화법(언어예절): 1문항

일상에서의 언어예절 역시 수업 중에 강조했던 것들이 출제되었으므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았을 것이다.

• 어휘(한자어, 성어, 고유어, 속담): 5문항

올해는 어휘 파트에 속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한자성어 문제는 독음과 함께 출제한 데다가 그 내용 역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라 대부분은 쉽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나마 한자어 고르기와 단어의 뜻 풀이 문제가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